

《祝 辞》
《축 사》

金 得麟
김 득린

韩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祝 辞



金 得麟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尊敬する来賓の皆様、そして日韓社会福祉専門家の皆様、意義深い第4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盛大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

また、今回の行事のために多くの時間と労力を惜しまずご尽力くださいましたユニバーサル財団をはじ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兵庫県社会福祉協議会、こころの家族の役職員と関係者の皆様にお礼申し上げます。

さて、苦難の現代史の中で国を興し、発展させたお年よりの方々に対する敬老孝親思想は人間が生きていく上で最も価値があるものと思います。

しかしながら、平均寿命の延びと出生率の低下につれ、高齢化が急速に進行し、高齢社会に対する対策が国家存続の問題となっています。

人口学者ポール・エリスは、低出生と高齢化が政治・経済・社会・文化の全てを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大きな衝撃をもたらすとし、国連事務総長のコピ・アナン氏は低出生と高齢化は人類にとって、まるで時限爆弾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警告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とき、高齢者福祉サービスの質の向上のため、日・韓社会福祉専門家が集まり、ともに方法を模索することは大変意義深いことと言えます。

今の高齢者は自分を犠牲にし、国と家族のため身を捧げてきました。従いまして、高齢者のすべての方々がQOLの高い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一人の高齢者も落ちこぼれないよう社会統合を実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どうか本日このシンポジウムでは、国と社会の発展のため一生を捧げてきたお年よりの方々の福祉増進につながるすばらしい方案が多く創出され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

第4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もう一度お祝いし、皆様に大きな祝福と幸運が共にありますことを祈り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축 사



김 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 여러분!
뜻 깊은 제4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유니벨재단,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효고켄사회복지협의회, 마음의 가족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현대사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발전시킨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은 인간생활의 으뜸이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사회 대책이 국가생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 폴 엘리스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롭게 그리도록 강요할 정도로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게 될 것이며,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령자들은 자기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을 희생하고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수준 높은 삶을 누리도록 헤드려야 합니다.
한분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